

# 투수 7명·타자 20명 출동... KIA 12이닝 전력 점검

일본 오키나와 아카마 구장서 삼성과 연습경기 8-12 패

양현종 2이닝·김윤동 1이닝 무실점...9일 귀국 시범경기 대비

발등에 불 떨어진 KIA 타이거즈가 '12이닝 연습경기'를 치렀다.

KIA는 5일 일본 오키나와 아카마 구장에서 삼성 라이온즈와 연습경기를 가졌다. 일반적인 캠프 연습경기는 9회까지 진행되지만 이날 경기는 달랐다.

두 팀은 9회가 넘어 12회까지 맞붙었다. KIA가 제이콥 터너를 시작으로 7명의 투수를 마운드에 올렸고, 헤일리를 선발로 내세운 삼성은 9명의 투수를 투입했다.

타석도 분주하게 돌아갔다. KIA에서 20명의 타자가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 삼성도 21명의 야수가 그라운드에서 등장했다. 결과는 12-8, 삼성의 승리.

보통의 연습 경기와는 달랐던 '12이닝 총력전'은 날씨 때문이다.

KIA는 이번 오키나와 캠프에서 2월 11일 야쿠르트전을 시작으로 3월 7일 LG전까지 모두 13차

레 실전 점검 시간을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의 유난했던 날씨 때문에 연습 경기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야쿠르트와의 두 번째 경기(2월 14일)가 우천으로 6회까지 진행됐고, 2월 16일 예정됐던 두산과의 경기는 아예 시작도 못 해봤다.

한신과의 경기(2월 19일)는 두 팀이 한 차례씩 공격을 한 뒤 비로 취소됐다.

2월 마지막 날 진행된 한화와의 경기 역시 비가 내리면서 6회를 끝으로 짐을 챙겨야 했다.

지난 3일 SK와의 연습경기도 우천 취소되면서 KIA는 앞서 예정됐던 10경기에서 고작 58이닝을 소화하는 데 그쳤다.

오는 12일 시범경기 개막에 앞서 이미 큰 틀을 그려놔야 하는 시점이지만 KIA는 줄부상 속 잇단 연습경기 취소로 시즌 구상에 차질을 빚고 있다.

KIA는 5일 모처럼 좋은 날씨가 예보되자 삼성에 12이닝 연습경기를 제안했다. 삼성이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이며 두 팀은 '12이닝 총력전'에 나설 수 있었다.

KIA는 이날 마운드 점검에 주력했다.

제이콥 터너를 선발로 해서 유승철-양현종-조 윌랜드-김윤동-이민우-박지훈이 마운드를 물려 받았다.

완벽한 몸상태를 위해 천천히 시즌 준비를 했던 양현종과 김윤동이 이번 캠프 연습경기에서 처음 출격해 눈길이 집중됐다.

첫 실전에 나선 '에이스' 양현종은 2이닝을 소화하면서 1피안타 1사구 3탈삼진 1실점으로 무난한 출발을 했다. 작구 최고 구속은 144km.

'마무리 후보'인 김윤동은 1이닝을 10개의 공으로 막으면서 첫 실전을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KIA는 '12이닝 연습경기'로 발등의 급한 불은 껐지만, 당분간 하늘만 쳐다보게 됐다.

6일 롯데, 7일 LG와의 연습 경기를 치르고 9일 귀국하는 KIA는 오는 12일 시작되는 시범경기를 통해서 더더진 시즌 구상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 하지만 미세 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 시범경기의 정상적인 진행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양현종

김윤동

## 한승혁, 한박자 천천히

허벅지 내전근 부분 손상... 복귀에 최대 6주 걸려

KIA 타이거즈 한승혁의 시즌 출발이 늦어진 다.

오른쪽 허벅지 통증으로 조기 귀국했던 우완 한승혁이 내전근 부분 손상으로 재활군에서 시즌 준비를 하게 됐다.

한승혁은 지난 26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진행된 요코하마와의 연습경기에서 한 타자 만을 상대한 뒤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며 마운드에서 물러났었다. 현지 병원에서 근육통 진단을 받은 한승혁은 정밀 검진을 위해 지난 28일 귀국길에 올랐다.

이후 한승혁은 구단 지정병원인 선한 병원과 조선대병원에서 두 차례 검진을 받은 결과, 내전근 부분 손상 진단을 받으면서 예상보다 복귀가 늦어지게 됐다.

3주가량 치료와 재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한승혁의 시범 경기 출전은 불발됐다. 실전 준비를 마치고 마운드에 복귀하기까지는 최대 6주가 소요될 전망이다.

가장 유력한 '선발 후보'였던 한승혁의 복귀가 늦어지게 되면서 KIA의 시즌 구상에도 비상이

걸렸다.

앞서 KIA 마운드의 새로운 카드로 기대를 모았던 사이드암 박준표가 위용중 제거 수술을 받으면서 캠프에 참가하지 못했고, 좌완 필승조 임기중도 어깨 통증으로 뒤늦게 대만에서 캠프를 시작했다.

캠프 중도 이탈자도 발생했다.

투수 김세현이 완벽한 몸상태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으면서 캠프 시작과 함께 1호 귀국자가 됐다. 일찍 오키나와에서 몸을 준비했던 윤석민도 어깨가 좋지 않아서 일찍 귀국길에 올랐다.

또 선수단의 리더인 내야수 이범호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캠프에서 하차했고, 좌완 이준영은 '오진 소동' 속에 귀국 후 캠프에 재합류하기도 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박성현 되찾은 '여제'

4개월만에 세계 랭킹 1위 탈환

박성현이 약 4개월 만에 여자골프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되찾았다.

박성현은 4일 자 여자골프 세계 랭킹에서 랭킹 포인트 6.74점을 획득해 6.54점의 에리아 쭈타누간(태국)을 제치고 세계 랭킹 1위가 됐다.

3일 싱가포르에서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HSBC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박성현은 지난주에는 5.66점으로 6.49점의 쭈타누간에 이어 2위였다.

박성현이 여자골프 세계 1위를 탈환한 것은 지난해 10월 말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박성현은 2017년 11월에 처음 세계 1위에 올랐으나 1주일 만에 평산산(중국)에게 1위 자리를 내줬다. 이후 지난해 8월에 다시 세계 1위가 된 이후 2개월 정도 1위를 달리다가 쭈타누간에 1위를 넘겼고, 4개월 만에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여자골프 세계 랭킹은 지난해 7월 말부터 약 7개월간 쭈타누간과 박성현만 번갈아 1위 자리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

박성현은 이로써 2019시즌 개막을 앞두고 내걸었던 목표 가운데 하나를 벌써 달성했다.

이번 시즌에 메이저 우승을 포함한 5승과 세계 랭킹 1위를 목표로 삼았던 박성현은 이미 1승을 따낸 데 이어 세계 1위에도 오르면서 성공적인 2019시즌을 예고했다.

특히 필리핀 기업인 블룸베리 리조트 앤 호텔과 2년간 70억원(추산)이라는 여자골프 사상 최고 대우의 후원 계약을 새로 맺은 올해 초반부터 심상치 않은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박성현은 6일부터 사흘간 필리핀에서 열리는 더 컨트리클럽 레이디스 인비테이셔널에 출전한다.

한편 최근 2주 연속 LPGA 투어 대회에서 준우승한 호주교포 이민지가 3위, 유소연과 박인비가 4위와 5위를 유지했다. 지난해 LPGA 투어 신인왕 고진영은 8위로 3계단이 올랐다.

/연합뉴스



역부족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줄리어스 랜들(30번)이 5일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미국프로농구(NBA) 유타 재즈와의 경기에서 루디 고버트의 슛을 저지하고 있다.

/연합뉴스